

# 양산에 대규모 복지원불사 '첫 삽'

## 대성암, 노스님 복지관·박물관 등 조성

### 2007년까지 완공

불교문화와 복지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공인문화복지원'이 경남 양산시 대운산 중턱에 세워진다. 13일 기공식을 갖고 시작된 이 불사는 6천평 부지에 공인박물관, 노스님복지관, 사찰음식관, 다도관, 한국약초연구실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 자체가 색다르고 규모도 예사롭지 않아 관심을 모은다.

대성암(주지 원진)은 대운산 중턱에 마련된 불사터에서 공인박물관과 신묘정사 기공법회를 열고 불사의 첫 삽을 떴다. 이날 기공식에는 도봉 양산불교연합회 회장, 하순봉 한나라당 부총재, 안종길 양산시장, 이수덕 불교TV 사장 등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웅장한 불사 회향을 기원했다.

신라시대 사적지로 알려진 해발

742m 고지에 탑골을 복원 조성하면서 불사를 시작한 대성암은 우선 2년 계획으로 대지 6천평에 1천평 규모의 신묘정사 법당과 9백평의 공인박물관을 건립한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공인박물관이 완공되면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삼국시대의 금동여래입상,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14세기), 초의선사 영정(19세기)을 비롯해 불화, 도자 음식관, 다도관 등 1천여 점을 전시한다.

이미 건축허가를 마치고 진행 중인 신묘정사와 공인박물관 건립 불사 진행과 함께 4년 계획으로 총 건평 5천평 규모의 노스님 복지시설, 평생교육원, 한국약초연구실, 사찰음식관, 다도관 등도 차근차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찰에만 전래되던 다도, 사찰음식 등의 계승과 전수를 위한 다도

관, 사찰음식관 등과 함께 특히 관심을 끄는 불사는 노스님복지관, 노스님복지관은 2동의 건물에 2백개의 호원식 방을 마련, 평생을 수행해 온 노스님들이 남은 생을 여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체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 불사는 '불교의 변화'를 주창해 온 원진스님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불교문화, 불교복지, 불교교육의 도량 마련을 위해 불자들이 함께 진행하고 함께 회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성암 신도회를 중심으로 1불자 1탑 봉안 운동을 벌이며 후원회원을 모집하는 등 각종 불사를 위한 불자들의 원력을 모으고 있다.

원진 스님은 "이 불사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공간은 불자들이



△대성암(주지 원진)이 2007년까지 대운산 중턱에 마련한 '공인문화복지원'의 조감도.

직접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개편되며 특히 노스님 복지관은 불교계의 당면 과제인 노스님의 노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복지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소년소녀가장 돕기

#### '어린이 불교합창제'

광주 한마음선원, 27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해월스님)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제4회 어린이 불교합창제'를 27일 오후 5시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갖는다.

광주지원 어린이 합창단은 이번 합창제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대행큰 스님의 선시를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한다. 또한 양양 본원 어린이 합창단과 광주지원 청년합창단, 광주 불교사암연합합창단이 특별 출연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동참할 계획이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 위파사나 '보리수 선원'

#### 압구정동 이전 개원

남방불교의 수행법으로 유명한 위파사나 수행처인 '보리수 선원'이 서울 압구정동으로 이전, 26일 개원법회를 연다.

협소한 시설을 시절을 접고 240평 규모의 새 수행공간을 마련한 보리수 선원은 좌선, 행선이 가능한 80평 규모의 수행방을 비롯해 탑의 실, 출판실, 면담실 등을 갖췄다.

월 2차례의 초보자 과정 및 매주 토요일의 경험자 과정이 1, 2부로 나뉘어 열리며 2부는 월요일로 변경된다. 새 장소는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단지 내 라이프샵가 옆 3층 건물. 02517-2841

오종욱 기자



### 기사찰에 '장보고비' 건립

삼국시대 후기 동서양을 잇는 인류사상 최초의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했던 '해상 무역왕' 장보고 청해진 대사를 기리는 비가 13일 일본 교토의 유명 사찰인 히에이산 엔라쿠지(延曆寺)에 건립됐다(사진).

전남 영암군 도갑사에 있는 도선국사 수미왕사 비를 모델로 4.2m 높이에 세워진 '장보고 대사비'는 9세기 일본 불교 혁신의 기틀을 마련한 엔닌(圓仁)스님이 당나라에서 활동할 때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었던 장보고 대사를 기념할 비를 세워야 한다는 엔라쿠지의 취지를 전남 완도군 당국 등이 받아, 엔닌 스님 탄생 1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11년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오종욱 기자



### 수위 녹이는 호형

#### 어머니에 신장 바친 아들

만전 신부전증으로 10년째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군복무중인 아들이 자신의 신장을 떼어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윤여현(22·사진) 군. 1991년부터 내막염을 앓았던 어머니 염동식(48)씨는 내막염 치료로 신장 기능이 나빠지게 됐다. 급기야 어머니 염씨는 작년부터는 복막투석을 받아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됐다.

윤군은 아버지와 동생과 얘기 끝에, 어머니의 조식이 적합한 자신의 콩팥을 떼어내어 어머니를 살리기로 결심, 지난 16일 성공적으로 장기이식 수술을 했다.

어머니 염씨는 "자식이 아프다면 부모가 못 줄 것이 없었지만, 내 몸이 아파 멀쩡한 자식의 살을 찢고 콩팥을 떼어 받는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아들에게 미안했다. 생명나눔실천회 02734-0777 김철우 기자

## "종단차원 '방생위' 설치 필요"

### 환경단체, 조계종에 제안

올바른 방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단 차원에서 방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레생태기행,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환경교육원 등 불교계 환경운동 실무자들은 16일 가진 '친환경 방생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제안하고, 방생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생의 사회운동화는 물론 시대에 맞는 방생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생위원회 설치의 지난해 조계

종 환경위원회가 종단차원에서 방생지침서를 제작하기 위해 실무단체들에게 제언을 요청한데 따라 나온 것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은 "그 동안 어떤 종이, 어디에, 얼마나 방생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생위원회를 통해 방생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방생행태 개발, 방생 신고 접수 및 관리, 방생지와 방생 시기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방생심사의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 만해스님 후손 5명 북한에 살고있다

### 월북아들 보국씨 자녀들

슬하에 외동딸 한 명만 둔 것으로 알려진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에게 출가 전 낳은 아들이 있었으며, 그 아들의 후손 5명이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에 살고 있는 한명심 씨는 북한 신문 <통일신보> 2001년 12월 29일자

에 기고한 수기에서 자신을 "만해의 아들 보국 씨의 딸"이라 소개하고 "나자신을 포함해 5남매가 현재 북한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씨는 "할아버지(만해)는 창씨개명을 거부한 채 자녀들을 일반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가르쳤으며, 아버지의 이름도 한 몰 바쳐 나라를 보위하라"는 뜻에서 '보국'이라 지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설성봉 씨의 다비식이 12일 수자타이카데미 운동장에서 열렸다.

### 인도서 구호활동

#### JTS 설성봉씨

#### 10일 귀환에 피살

인도 비하르주 동게스오리에서 불가촉천민 구호활동을 펼치던 정토회 제이티에스(JTS)의 구호활동가 설성봉(46·부산) 씨가 수자타이카데미에 참여한 무장 괴한들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불자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정토회에 따르면, 설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15분 쯤(현지시간) 교문 밖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욱상으로 올라가 "누구나"고 묻는 순간 6~7명의 무장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설 씨는 1980년 부산대 기계공학

과를 졸업한 뒤 철강회사 간부까지 하다가 1998년 굶주리는 북한 동포의 참담한 실상을 듣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토회의 북한지원 사업에 뛰어들었다. 1999년부터는 부산 정토회 제이티에스 담당으로 인도 및 북한지원사업을 펼쳤으며, 2001년 6월 인도 동게스오리 수자타이카데미의 기술중학교 건물 신축공사 현장책임자로 파견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설성봉 씨는 12일 영결식 직후 수자타이카데미 운동장에 마련된 다비장으로 운구돼 일유·법륜 스님 등 한국 조문객 1백여 명과 인도 현지인 1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비식이 치러졌다. 같은 시각 정토회 산하 전국 6개 정토회법당에서도 설성봉 씨의 영가전도제가 마련됐다.

강유신 기자

좋은 명당을 만드는

##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북해방은 명당 육기방

**이런분에게 사용하십시오.**

1.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리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많으신 분
5.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6. 돈이 새어 나가고 융통이 안되시는 분
7. 공부를 안하고 자녀가 말성을 부리는 분
8. 부부화합이 잘 안맞아 힘드시는 분
9. 집터나 묘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10.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
11.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12. 관재구설과 액운이나 상재로 시달리는 분
13. 수험생 합격 기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 하십시오.

※ 좋지 않은 시주팔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864-7878**

미국 일본 호주 동등에서 사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가격 : 1호 1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흑육기방, 집터, 묘지, 조상합동묘, 3천차우스 25만원 홍형장전용 30만원

"세상의 온갖 악(惡)을 경계하며 불법(佛法)에 귀의하는 중생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서... 부처님을 모신 사찰은 모두 청정도량임을 증명해주는 사천왕 4분을 모신"

사천왕(四天王) 병풍

규격 (2폭) 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아간 : 031)706-3060**

① 병풍이나 요사채 등 신도들이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펼쳐 놓을 수 있도록 사천왕을 2폭씩 나누어 모셨습니다.

②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내본 모두 각각 황동판위에 모서리 표면에 특수 코팅처리를 하였고 때문에 오랜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때는 고운 용걸래 등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2폭씩 양쪽으로 펼쳐놓았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접 보시기를 원하시면 날짜를 정하여 스님을 찾아 뵙고 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